

2011년 서울시 자살사망자 통계분석

Analysis of suicide deaths in Seoul ; based on nation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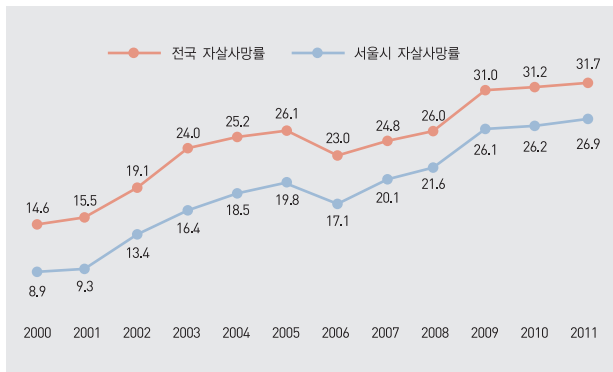
이명수¹, 이구생¹, 김동욱¹

MS Lee MD, MPH, GS Lee MSW, DW Kim MSW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 전국과 서울시 자살사망에 대한 비교 및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
- 2011년 한 해 서울시민 중 자살로 사망한 2,722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

★ 표 1. 자살사망률 연도별 변화추이(인구10만 명 당)



1. 전국과 서울시 자살사망에 대한 비교

1) 자살사망률 연도별 변화추이(인구10만 명 당)

전국과 서울시의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000년대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를 보 이다가 또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2009년 대비 2010년의 자 살증가율은 전국이 서울시에 비해 미세한 수준에서 더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대비 2011년의 경우는 전국에 비해 서 울시가 미세한 수준에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자살사망자수 연도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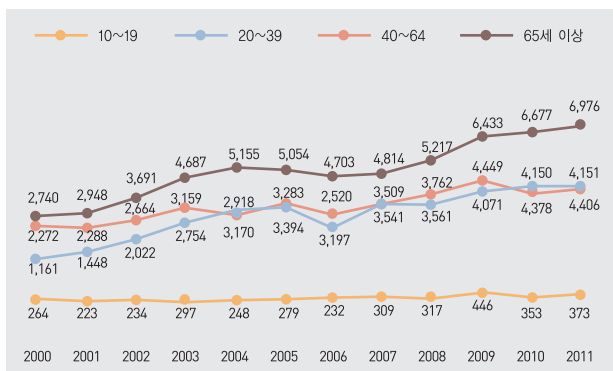
연도	전국 자살사망자수	서울시 자살사망자수
2000	6,460	919
2001	6,933	959
2002	8,631	1,376
2003	10,932	1,670
2004	11,523	1,887
2005	12,047	2,013
2006	10,688	1,742
2007	12,174	2,045
2008	12,858	2,200
2009	15,413	2,662
2010	15,566	2,668
2011	15,906	2,722

2) 자살사망자수 연도별 변화추이

전국의 자살사망자수는 2003년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6년 만 (2009)에 1만 5천 명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전년대비 153명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 에는 전년대비 340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 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자살사망자수는 2002년 1천 명을 돌파한 이후 3년 만 (2005)에 2천 명을 돌파하였다. 2006년에는 1천 명대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전년대비 6명이 증가하여 증가세가 주춤하는 듯 하 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대비 54명이 증가하였는데, 하루 평균 자살사망자수가 7.3명에서 7.6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 표 3. 전국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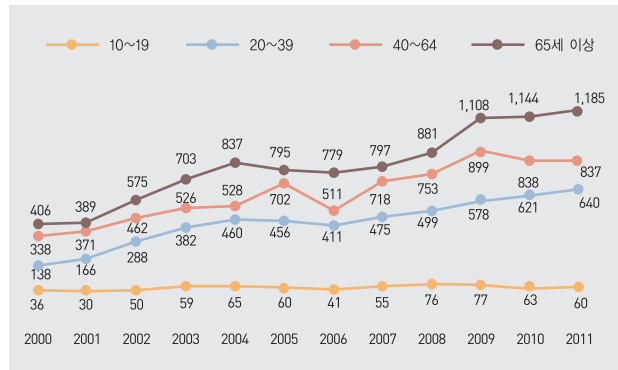
3)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전국의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40세~64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비해 2011년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2010년 10~19세와 20~39세의 자 살사망자수가 2006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1년 들어 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사망자수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다만 65세 이상 자살사망자의 증가 추 세는 다소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서울시의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40~64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자살사망자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20~39세와 10~19세의 자살사망자수가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전국의 연령대별 사망자수가 모두 증가한 것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는 10~19세와 20세~39세는 감소한 특징을 볼 수 있다.

★ 표 4.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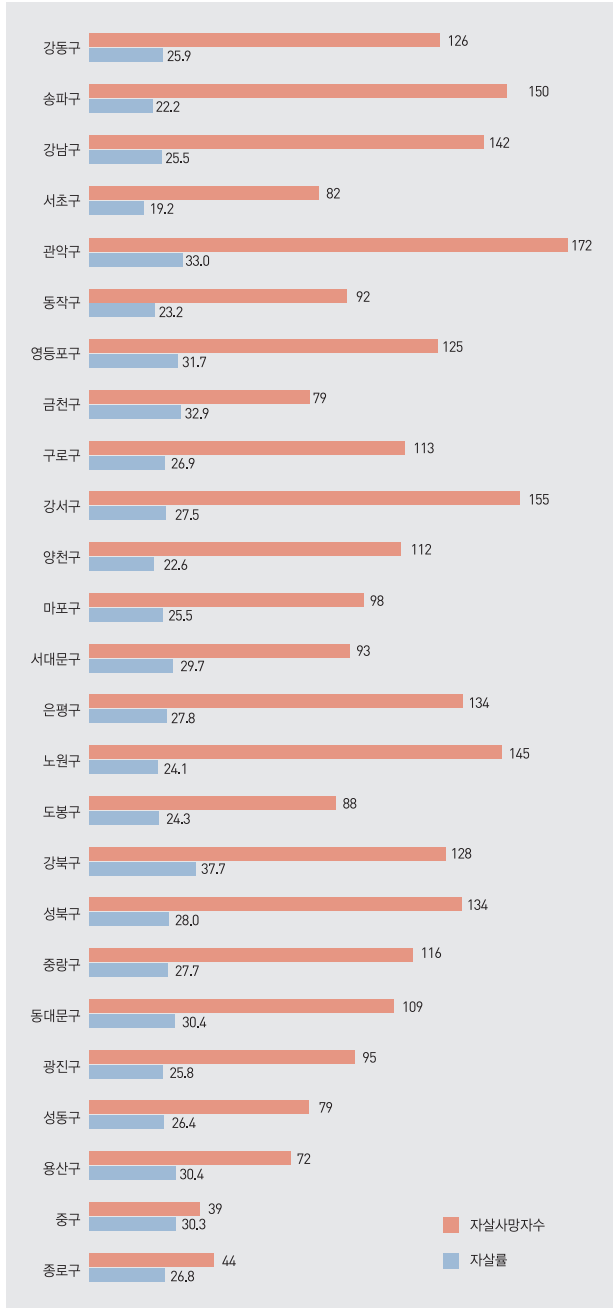
5) 사망원인별 순위

사망원인별 순위에 있어서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자살률 이 전국과 서울 모두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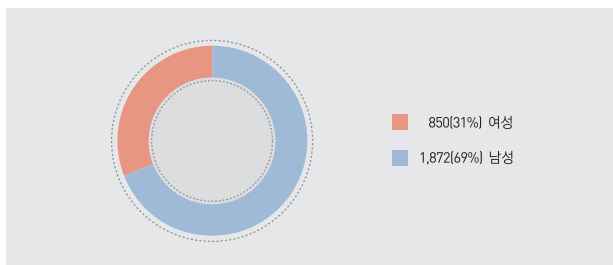
★ 표 5. 사망원인별 순위

	1992	1998	2003	2007	2009	2010	2011
전국	1 암	1 암	1 암	1 암	1 암	1 악성신생물(암)	1 악성신생물(암)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 질환	3 심장 질환
	4 운수사고	4 운수사고	4 당뇨병	4 자살	4 자살	4 자살	4 자살
	5 간질환	5 간질환	5 자살	5 당뇨병	5 당뇨병	5 당뇨병	5 당뇨병
	6 고혈압성 질환	6 당뇨병	6 간질환	6 운수사고	6 운수사고	6 폐렴	6 폐렴
	7 당뇨병	7 자살	7 운수사고	7 만성하기도 질환	7 만성하기도 질환	7 만성하기도 질환	7 만성하기도 질환
	8 만성하기도 질환	8 만성하기도 질환	8 만성하기도 질환	8 간질환	8 간질환	8 간 질환	8 간 질환
	9 호흡기 결핵	9 고혈압성 질환	9 고혈압성 질환	9 고혈압성 질환	9 폐렴	9 운수사고	9 운수사고
	10 자살	10 호흡기 결핵	10 추락사고	10 폐렴	10 고혈압성질환	10 고혈압성질환	10 고혈압성 질환
서울	1 암	1 암	1 암	1 암	1 암	1 암	1 암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4 간 질환	4 자살	4 당뇨병	4 자살	4 자살	4 자살	4 자살
	5 운수사고	5 간질환	5 자살	5 당뇨병	5 당뇨병	5 당뇨	5 당뇨
	6 당뇨병	6 당뇨병	6 간질환	6 간 질환	6 간질환	6 폐렴	6 폐렴
	7 만성하기도 질환	7 운수사고	7 만성하기도 질환	7 만성하기도 질환	7 폐렴	7 간질환	7 간질환
	8 고혈압	8 만성하기도 질환	8 운수사고	8 운수사고	8 운수사고	8 만성하기도 질환	8. 만성 하기도 질환
	9 결핵	9 폐렴	9 고혈압	9 고혈압	9 만성하기도 질환	9 비노생식기 질환	9 정신 및 행동장애
	10 자살	10 결핵	10 추락	10 폐렴	10 고혈압	10 운수사고	10 운수사고

★ 표 6. 25개구 자살사망자수 및 자살률



★ 표 7.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



2. 서울시

1) 25개구 자살사망자수 및 자살률

2011년 서울시 내 25개구 자살사망자수는 관악구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강서구(155명), 송파구(150명), 노원구(145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서울시 내 25개구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강북구(37.7명)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관악구(33.0명), 금천구(32.9명), 영등포구(31.7명), 동대문구·용산구(30.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31.7명)과 비교할 때,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또한 2010년 자살사망률이 20명 미만이었던 자치구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2011년에는 서초구의 경우 20명 미만(19.2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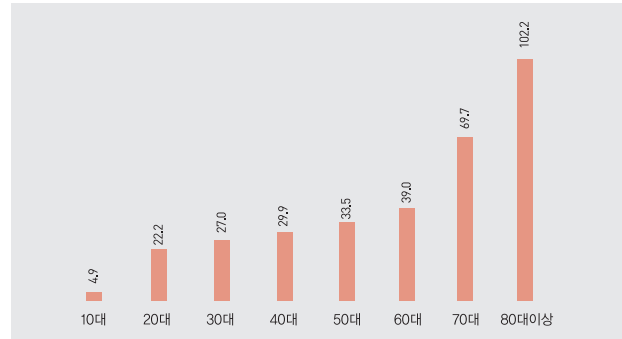
2)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1.63배)과 비교할 때 남성의 자살 비율이 여성에 비해 매우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자살사망자수가 92명 감소한 반면, 남성의 자살사망자수가 146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3) 연령대별 자살률

서울시 자살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50대, 60대, 70대의 자살률은 감소한 반면, 10대, 20대, 30대, 40대, 80대 이상의 자살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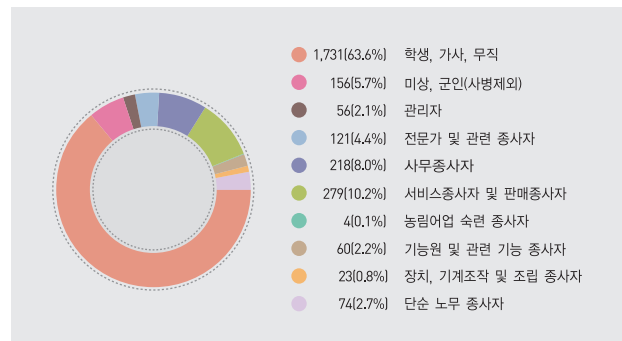
★ 표 8. 연령대별 자살률



4) 직업별 자살사망자수

직업에 따른 자살사망자수의 경우는 학생·가사·무직이 전체 자살사망자수의 63.6%(1,731명)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는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가 279명(10.2%), 사무종사자가 218(8.0%)명으로 나타났다.

★ 표 9. 직업별 자살사망자수



5) 혼인상태별 자살사망자수

자살사망 당시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1,148명(42.2%)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미혼이 907명(33.3%), 이혼이 400명(14.7%), 사별이 255명(9.4%)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해볼 때, 배우자 있음(41.8%)과 이혼(13.0%)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미혼(33.9%)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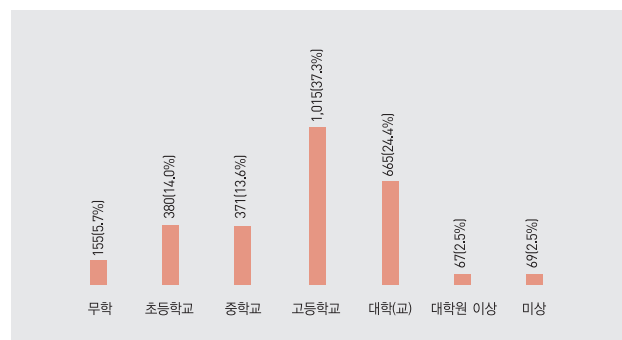
★ 표 10. 혼인상태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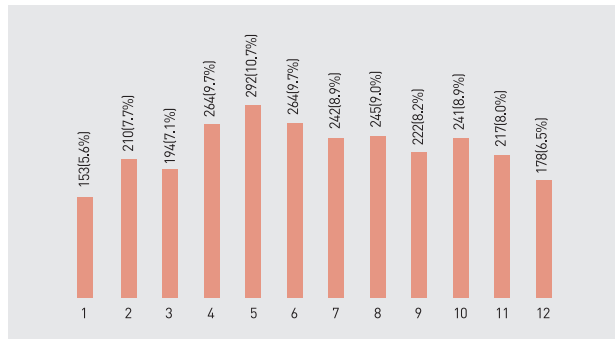
6) 교육정도별 자살사망자수

자살사망자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1,015명(37.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665명(24.4%), 초등학교 졸업이 380명(14.0%), 중학교 졸업이 371명(13.6%)으로 나타났다.

★ 표 11. 교육정도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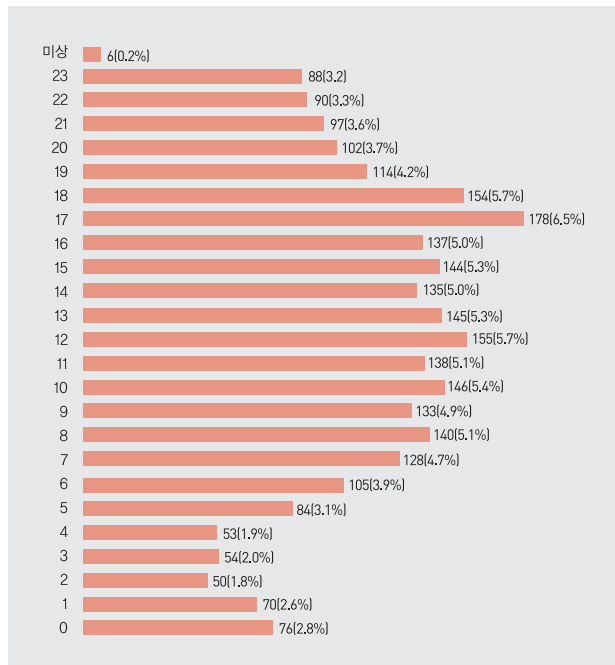
★ 표 12. 월별 자살사망자수



7) 월별 자살사망자수

월별 자살사망자수는 5월이 292명(10.7%)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4월과 6월이 264명(9.7%), 8월이 245명(9.0%)으로 나타났다. 또한 봄과 초여름에 자살률이 큰폭으로 상승한 반면 가을 이후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상반기가 1,377명(50.6%(2010년 47.8.0%)), 하반기가 1,345명(49.4%(2010년 52.2%))으로 나타났는데, 전국도 상반기가 8,007명(50.3%), 하반기가 7,899명(49.7%)으로 서울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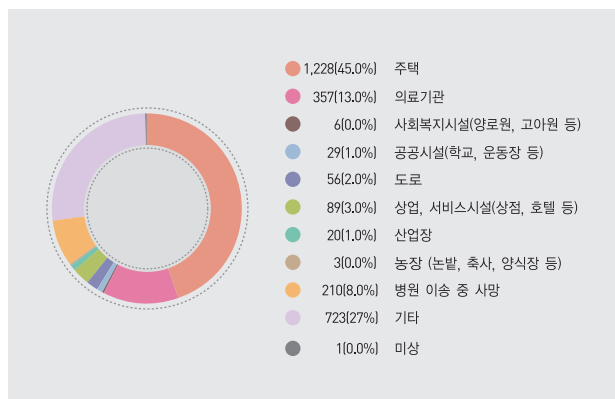
★ 표 13. 시간별 자살사망자수



8) 시간별 자살사망자수

시간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17시가 178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는 12시(155명), 18시(154명), 10시(146명)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낮은 빈도는 2시가 50명이었으며, 다음 순으로는 4시(53명), 3시(54명)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에도 17시가 849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4. 장소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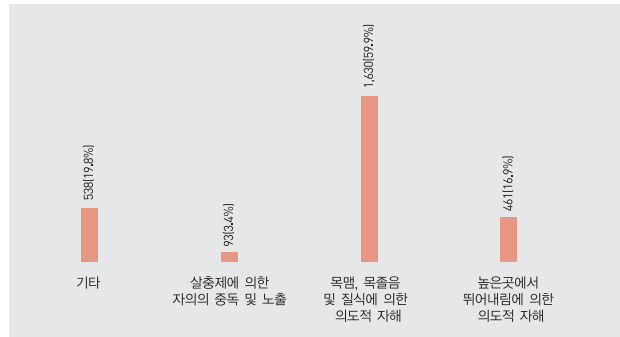
9) 장소별 자살사망자수

장소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주택 내가 1,228명(45.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는 의료기관이 357명(13.0%), 병원 이송 중 사망이 210명(8%)으로 나타났다.

10)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목매, 목졸음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1,630명으로 전체 자살사망자수의 약 5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461명으로 전체의 약 1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도 목매, 목졸음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52.5%로 가장 높았으나, 살충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의 경우 전국은 16.2%인 반면 서울시는 3.4%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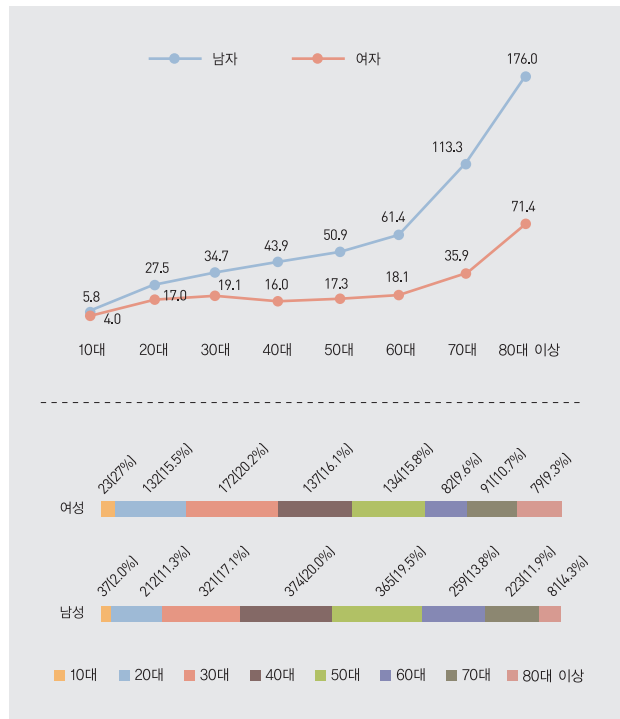
★ 표 15.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



11) 성·연령 비교

성별에 따른 연령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모두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율에 있어서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20대 이하와 30대, 80대 이상에서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40대, 50대, 60대, 7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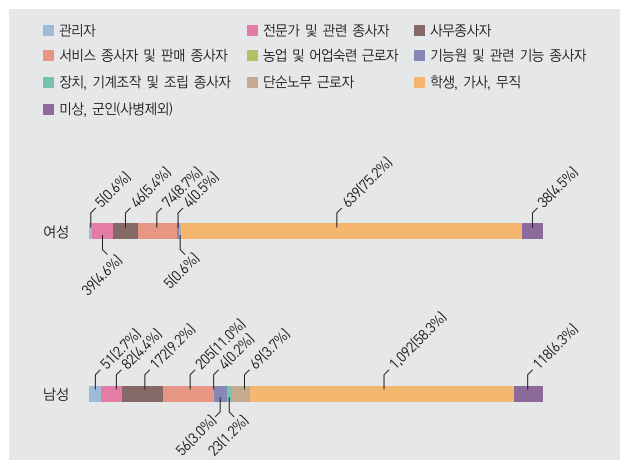
★ 표 16. 성·연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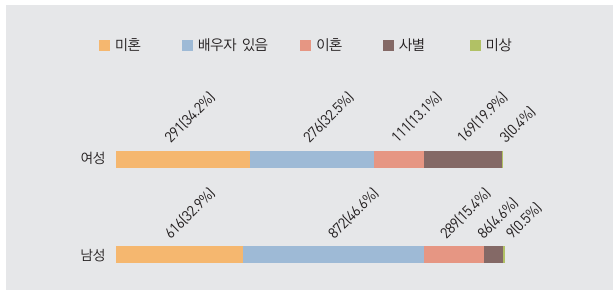
12) 성·직업 비교

성별에 따른 직업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남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율에 있어서는 자살사망자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가사·무직의 경우 여성(75.2%)이 남성(5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직업 유지 비율이 낮은 여성과 젊은 여성층에서 자살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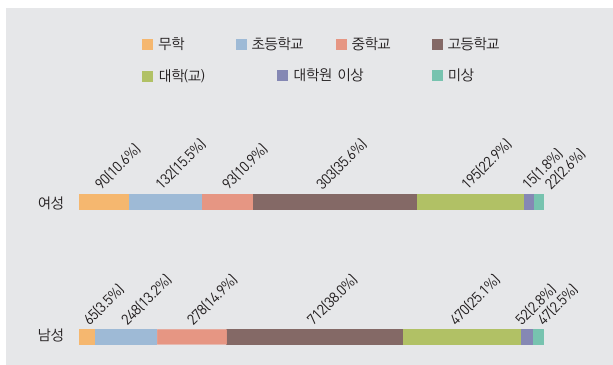
★ 표 17. 성·직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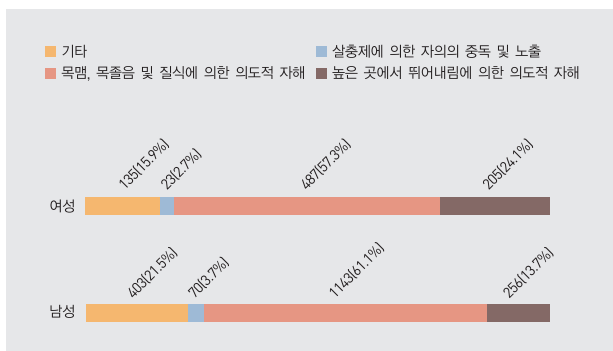
★ 표 18. 성·혼인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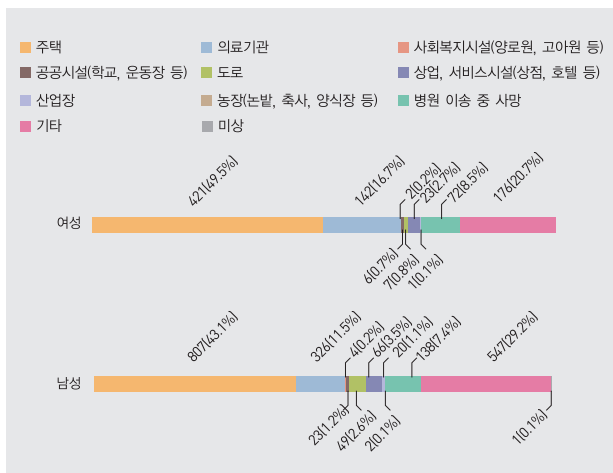
★ 표 19. 성·교육정도 비교



★ 표 20. 성·사망원인 비교



★ 표 21. 성·사망장소 비교



13) 성·혼인상태 비교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남성이 사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율에 있어서는 사별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별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뒤 생계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측해볼 수 있다.

14) 성·교육정도 비교

성별에 따른 교육정도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이상까지의 영역에서 모두 높았으나, 무학에서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무학,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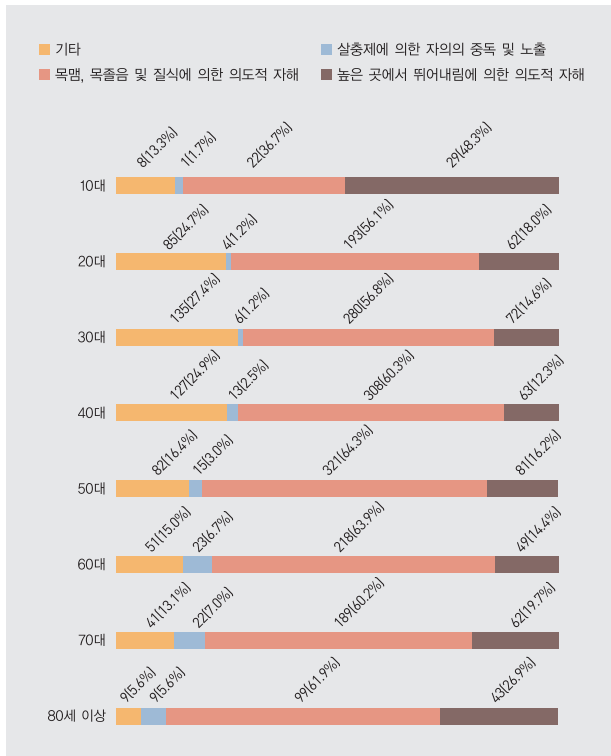
15) 성·사망원인 비교

성별에 따른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모든 자살수단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이 살충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목뭍, 목졸음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여성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성·사망장소 비교

성별에 따른 사망장소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요 장소에서 대부분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이 주택 내, 의료기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 연령·사망원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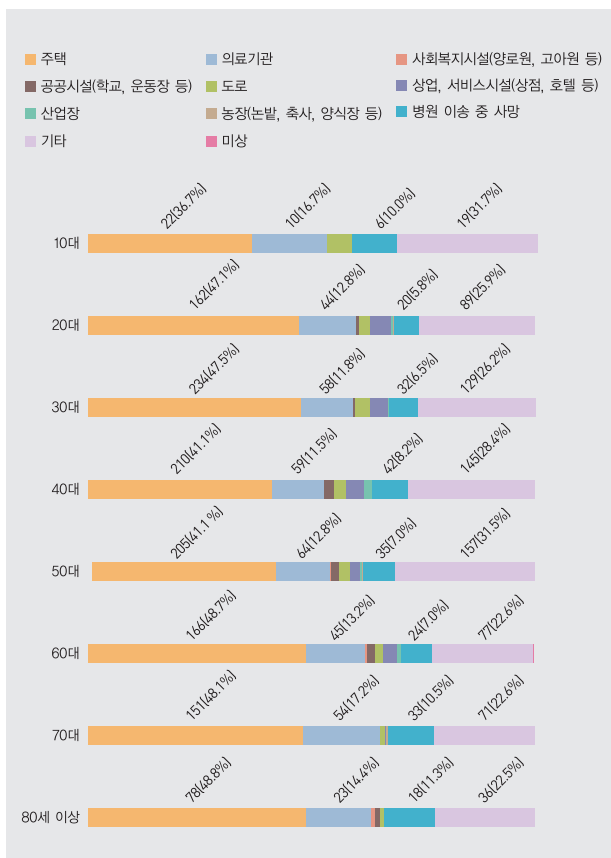


17) 연령·사망원인 비교

연령에 따른 사망원인의 비교에서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목매, 목졸음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을 나타냈는데, 특히 50대가 6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63.9%)와 80대 이상(61.9%)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는 높은 곳에서의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48.3%), 성인 및 노인의 자살사망수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3. 연령·사망장소 비교



18) 연령·사망장소 비교

전 연령대에서 주택 내가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